

국어 영역

5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잠개서 비라도 내리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독서
- 문학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구 철학은 오랜 세월 은유적 표현을 부차적 언어 장치로 격하하여, 개념이라는 영역을 진리 탐구의 핵심으로 내세워 왔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데카르트의 합리론, 칸트의 이성주의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자율적 사고를 통해 보편 개념을 확립한다는 신화를 전면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자칫 철학이 언어적·개념적 기반 위에서 은유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낳는다. 이러한 모순은 여러 사상 체계가 내세운 논증 속에는 특정한 비유나 상징이 침투해 있고 그 비유 자체가 개념 성립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지만, 철학은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스스로를 비은유적 담론인 양 속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유를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닌 언어의 불안정성과 의미의 유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자, 개념적 의미의 이해를 돕는 긍정적 대상으로 본 데리다는 이와 같은 은유의 은폐를 본격적으로 폭로하였다. 철학이 자신을 순도 높은 개념 담론이라고 주장할수록 사실상 은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이를 ‘은유 기피와 은유 의존의 이중성’으로 요약한다. 새로운 개념은 생겨나는 순간 대개는 비유적 뿌리를 지닌 언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에 사람들은 그 언표들이 비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반복적 사용을 통해 점차 그 비유적 흔적이 마모되면 이 은유는 마치 문자적 의미를 얻은 듯 통용된다. 그리고 마모된 은유가 어느새 ㉠ **죽은 은유**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철학은 이 비유적 개념을 아무 의심 없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데리다는 바로 이러한 과정, 즉 은유가 반복을 통해 특정 표현이 되었다가 마침내 그 흔적을 지워 보편 개념으로 위장하게 되는 흐름을 ㉡ **은유의 문자화**라고 부른다. 살아 있는 은유와 죽은 은유의 ㉢ **경계선**은 유동적이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철학적 담론은 그런 모호한 경계를 애써 지우려 하면서도 필연적으로 은유를 되풀이해 온 셈이다.

데리다는 서구 철학이 은유를 억압해 온 방식으로 ㉣ **백색 신화**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서구 문화권에서 탄생한 은유적 철학을 은유로 느끼지 못하도록 탈색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역적·특수한 가치 체계를 무색의 보편·절대성으로 포장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백색이란 말에는 색을 잃었다는 중립적 표상과 서구인의 피부색을 암묵적으로 표준으로 삼는 인종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신화에는 대서양적 사유나 유럽적 근대성이 전 지구의 인간 이성이자 만인의 합리성으로서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전제가 작동한다.

데리다는 이를 서구 보편주의의 신화화 과정이라 진단하며, 철학적 개념도 그 신화 체계 안에서 자기 은유성을 감추고 절대 진리로 군림한다는 점을 폭로한다. 예컨대, 서구 철학이 강조해 온 합리성이나 계몽은 본디 유럽 역사 특유의 맥락에서 태어난 은유적 해석을 토대로 성립된 것이지만 신화라는 상징의 힘을 통해, 이 담론은 인류 보편 모델로 둔갑한다. 결국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철학적 사유가 사실은 은유적 기반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한 채, ‘보편 진리’라는 허상만을 고수하게 된다. 데리다는 서구적 질서가 의심하고 성찰해야 할 대상인 철학을, 믿음과 추종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한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리다는 은유가 서구 철학 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설명한다.
- ② 합리성이 보편 모델로 간주되는 것은 은유에 대한 수사적 기능을 간과한 결과이다.
- ③ 특정한 은유적 표현이 개념 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그 표현이 갖는 문자적 의미가 약화된다.
- ④ 특정 체계가 주장하는 논증 속의 비유는 인지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개념 성립의 출발점이 된다.
- ⑤ 데리다에 따르면 특정 철학이 다양성을 강조할수록 은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

2. ㉣ **백색 신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철학이 은유를 기피하고 보편성을 추구한 결과이다.
- ② 특정 철학이 가진 가치 체계를 제거한 결과이다.
- ③ 개인들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④ 특정한 문명권의 사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속이는 과정이다.
- ⑤ 특정 철학 속의 은유를 인식하기 어렵도록 가린 결과이다.

3.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특정 철학이 보편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을 통해 비유적 의미인 은유는 상징으로 변화한다.
- ③ ㉢은 비유적 은유와 개념적 은유의 경계를 뜻한다.
- ④ ㉣은 특정 철학이 ㉠을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 ⑤ ㉠이 반복되어도 ㉢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4. 윗글의 데리다와 <보기>의 블루멘베르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연구는 은유의 '존재 이유'를 주목한다. 그는 은유가 단순히 문학적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유가 불분명하고 추상화되기 힘든 영역을 포착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은유는 우리가 명료화하지 못하는 인식의 지점을 중간 단계로 연결해 주고 이때 은유가 '대상 없는 이해'를 표현하는 준개념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고는 완전한 개념화가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역에서 곧잘 은유의 도움을 받아 일단의 '사고 지지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그 지지대가 결국 개념적 단계로 성숙되면, 은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사상적 도구로 취급되거나 배제되는 '은유의 운명'을 맞이 한다.

- ① 데리다와 달리 블루멘베르크는 은유를 사고가 명확히 포착되지 않는 영역을 설명해 주는 철학적 도구로 보겠군.
- ② 블루멘베르크는 은유가 개념화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불안정성을 노출한다는 점을 우려하겠군.
- ③ 데리다가 말한 죽은 은유는 블루멘베르크가 말하는 사고 지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은유와 유사하겠군.
- ④ 두 학자 모두 은유를 무가치한 잉여물로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은유의 준개념적 역할은 인정하겠군.
- ⑤ 두 학자 모두 은유가 불분명한 인식 대상과 개념적 질서 사이를 잇는 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이겠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벼를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 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한 잎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꽃잎 같고

- 김수영, 「꽃잎 1」-

(나)

옥수수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햇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겉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흙집**에 **㉢**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 **맞춘다**

- 이정록, 「희망의 거처」-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는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 ③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낸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② ㉡: 닿지 못할지라도 계속하여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 ③ ㉢: 스스로 내린 뿌리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 자신을 지탱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 ⑤ ㉤: 상처를 극복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긍정하는 말이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일상적 공간에서 흔들림이라는 실재하는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이는 바위로 표현된 시대적 고난에 당면한 시민들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내적 변화가 무의식적임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시대적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전망을 제시한다.

- ① '벼를 터는 마당'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화자가 위치한 일상적인 공간에 외부의 힘이 부재함을 드러내는군.
- ② '옥수수잎이 흔들리'는 것이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일어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음에도 시민들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자기가 가닿은 언덕을 모퉁에도 바람의 고개가 일어서는 것은, 고난에 당면한 시민들의 내적 변화가 무의식적임을 드러내는군.
- ④ '바람의 고개'가 임종의 생명 같다는 것은, 시대적 고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내는군.
- ⑤ '바위를 뭉개고' 한 잎의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것은, 시대적 고난에 당면한 시민들의 내적 변화를 통해 시대적 고난을 이겨낸 모습을 드러내는군.

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대상에 대한 관찰이나 대상에 대해 느낀 바를 작품 속에 묘사한다. 이렇게 작품 속에 묘사된 것들을 관찰하고 이들끼리 연결 지으면, 독자는 이와 관련된 화자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 ① (가)의 '거룩한 산'과 '즐거움'을 연결 지으면 거룩한 산에 가는 과정에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② (가)의 '바람의 고개'와 '혁명'을 연결 지으면 바람의 고개가 변화를 몰고 올 존재라는 화자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③ (나)의 '땅에 닿지 못할'과 '상처의 지붕'을 연결 지으면 옥수수대가 지닌 '맨발의 근성'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나)의 '상처'와 '버팀목'이라는 대비되는 대상을 연결 지으면 생물의 '생'에 관한 화자의 연민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가)의 '꺼졌다'와 '깨어나고'를 연결 지으면 '즐거움'에 대한 화자의 시선을 유추할 수 있고, (나)의 '땅바닥'과 '서너 마디'를 연결 지으면 내려진 '뿌리'가 얕다는 화자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군.